

조기 설정과 시간적 범위

천 선행

일본 입명관 대학교

목 차

I. 머리말	V. 조기의 상한
II. 중기선정의 기준	VI. 실연대상의 검토
III. 조기와 전기의 분리	VII. 맺음말
IV. 돌대문토기와 가락동식토기와의 관계	

I. 머리말

부문토기시대에 조기가 추가되는 과정은 돌대문토기의 연구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의 황석리유적과 1980년대부터 실시된 미사리유적 조사를 통해 돌대문토기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고, 서일본 야요이시대 조기의 돌대문토기와의 관련성이라는 관점에서 돌대문토기가 공별토기후반의 전기말로 편년되었다(이홍종1987, 윤세영·이홍종1994)¹⁾. 이에 반해, 최종택은 미사리유적에서 출토되는 돌대각목문토기가 공별토기보다 빠를 것으로 보았다(최종택 1994)²⁾. 이후, 1995년부터1999년사이 이루어진 남강유역의 발굴조사를 거쳐, 돌대문토기의 존

1) 미사리유적 보고자는 돌대문토기가 출토되는 (고)KC-015호주거지보다 공별토기만이 출토되는 토광 KK-115·KK-116·KK-117호가 빨리 축조되었다고 보았다(윤세영·이홍종1994).

2) 근거로 미사리유적 (고) KC-018호주거지가 공별토기가 출토되는 토광에 의해 잘려 있는 점, 공별토기가 출토되는 장방형주거지에서 폐기과정에서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 돌대각목문토기편이 출토되는 점,

재는 확고해지고, 무문토기시대 전기의 각 문화유형과의 계통성 문제를 비롯하여 구체적인 편년체계와 시간폭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돌대문토기가 즐문토기적 요소를 가지고, 즐문토기적 요소와 공반하는 점에서 무문토기시대 조기가 설정되기에 이르렀다(이상길1999, 안재호2000, 김재윤2003, 천선행2005).

이처럼 돌대문토기문화 단독기를 무문토기시대 중에서도 이른시기일 것으로 보는데에는 어느정도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중서부지역의 신석기시대후기와 남부지역의 신석기시대 말기에 무각목돌대문 혹은 무문토기적 요소가 공반되고 있어 이들 이행기적 요소로 조심스럽게 조기설정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①어떠한 기준으로 돌대문토기 단독기를 전기에서 분리할 수 있는가? ②돌대문토기 단독기로 설정된 조기를 한반도 남부지역에 적용가능한가? ③조기의 상한과 하한, 그리고 조기의 내용은 무엇이며, ④전후시기의 집단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등의 의문이 남는다. 바로 이러한 의문들이 필자에게 주어진 과제일 것이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조기의 설정기준과 내용, 그리고 시간적 범위에 대한 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조기설정의 기준

조기설정이 가능한가라는 문제는 시기구분의 획기를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원본적 문제와 직결된다. 토기가 다른 유물에 비해 자료가 풍부하고 변화가 빠르며, 특히 토기내에서는 문양의 변화가 빠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 단계설정이 신석기시대뿐만 아니라, 무문토기시대에도 활발히 이루어진다. 유구에서 보자면, 무문토기시대의 경우,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단계설정이 유효하게 활용된다. 이들 개별분석이 분류를 위한 분류가 아님이라는 비판과 토기의 변화획기와 주거지의 변화획기가 동일하지 않은 점을 들어 단계설정의 타당성을 문제 삼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단계로 설정된 각각의 분류형태들을 무의미하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무문토기시대 전기의 이중구연사선문토기를 이중구연부의 폭과 접합형태, 사선문의 시문 범위에 따라 변화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일정기준에 따라 설정된 각 단계의 문양형태들이 단순한 형태차이 이외에 무의미하다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문양형태가 일정시

돌대각목문토기의 태토가 빗살무늬토기와 유사한 점, 돌대각목문토기의 저부가 환저인 점을 들고 있다 (최종택1994).

간동안 일정비율을 차지할 때, 다분히 제작상의 의도성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각 형태의 의미가 시간성인지, 문양의 유행인지, 제작집단의 표상인지, 제작상의 간결화인지, 문양의 인식변화인지 분명치 못하더라도 말이다. 토기뿐만 아니라, 석촉·석도·석부·석검도 마찬가지로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의미를 명확하게 이끌어 낼 수 없다고 하여, 고고학적 자료의 형태적 차이를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육안으로 인식할 수 있는 유물, 유구 혹은 유적의 형태적 차이에 착목하여, 각 차이의 의미와 형태변화의 역사적유의성을 읽어내는 것이 물질자료를 이용하는 고고학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후자의 경우는 고고자료를 종합하여 시기구분을 할 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하나의 事像을 구분하고자 할 때, 동일기준을 적용하도록 배웠고, 그렇게 하고자 노력해 왔고, 은연중에 작은 범위내의 구분기준을 확대적용해 왔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각 유물의 변화속도에 차이가 있고, 개별유물의 변화획기를 복수유물에 적용시키는 매우 어렵게 느껴진다. 획기간의 불일치를 문제삼는 것은 공통된 인식에 도달하는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용도라는 관점만으로 토기들이 제작되지 않고, 무문토기의 존재만으로 유적이 형성되지 않듯이, 집단들이 만들어 낸 물질자료들이 하나의 측면만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한 고고학적 자료의 다의성과 복합성을 고려함으로써 시공적으로 한정된 문화의 특성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위와 같은 개별유물의 분석이 아니라, 개별자료들을 취합하여 상위단위의 시기구분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개별유물의 획기 혹은 개별자료들을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구분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개별자료의 분류가 무용하다고 볼 수 없다. 위의 이중구연사선문토기에서는 점차 이중구연의 요소가 없어지고, 사선문 또한 축소되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이는 단독으로 무문토기전기의 구연부에 집중되던 문양이 이후의 송국리유형단계에 소멸하는 사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무문화의 도정을 보여줌으로서, 송국리식토기의 형성과 전기무문토기와의 관련성을 파악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한다. 개별유물을 대상으로 한 단계설정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연구의 한 형태이고, 개별자료들을 취합한 시기구분을 목적으로 한 연구 방법과는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무문토기시대 중기는 요녕식동검·원형주거지·지석묘, 후기는 세형동검·방형주거지·목판묘 등으로 특징지어지고, 모두 새롭게 등장하는 요소들이다. 물론 이들 새로운 요소의 출현시기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견이 있고, 실상 지역마다 다르므로, 어디부터를 중기 혹은 후기로 할 것인가, 혹은 후기를 무문토기시대에서 제외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들요소가 이후 각 시기를 대변하는 요소들의 일부분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새롭게 출현하

는 요소들을 획기로 삼는 것은 가장 명쾌한 방법이기도 하다.

반면, 토기와 같이 동일요소가 지속된다고 하여 동일한 문화형태로 간주할 수 없다. 토기내에서도 일정기간 동안 형태변화를 목격할 수 있고, 전후시기를 통관했을 때의 변화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동일요소의 형태변화는 중요한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기의 가락동식토기나 역삼동식토기, 중기의 송국리식토기, 후기의 점토대구연토기등은 토기라는 요소에서는 동일하지만, 형태차이는 명확하며, 이러한 차이는 시간성은 물론 계통의 차이를 이야기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이상의 복수의 획기, 각 유물의 형태차라는 관점에서 각 유물형태의 조합을 시기구분의 기준으로 삼고자한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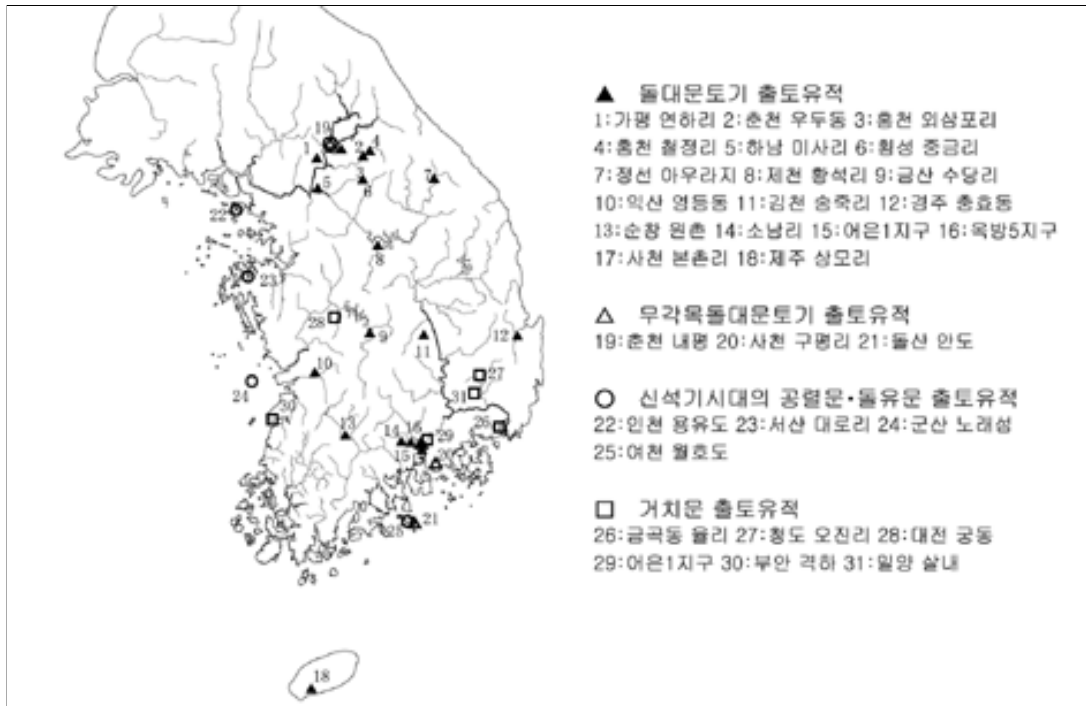
현재까지의 연구성과로 볼 때, 무문토기시대의 초기양상은 크게 3가지가 확인된다.

- i. 돌대문토기 단독기(한강유역, 남강유역)
- ii. 즐문토기내의 무문토기적 요소의 등장(무각목돌대문, 공별 또는 돌유문⁴⁾, 거치문)
- iii. 무문토기내의 즐문토기적 요소의 잔존(신석기시대말기의 이중구연)

이러한 초기양상을 위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본고의 조기라는 용어는 무문토기시대에 한정되므로, 기본적으로 조기의 내용은 무문토기시대의 것에 준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전기와 시기적·형태적으로 구별되는 유물조합을 이루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양상 i 과 iii은 무문토기시대의 내용으로 구성되지만, ii의 경우는 무문토기시대의 범주에 포함시키기 어렵다. 또한, i 과 iii은 전후관계를 포함하여 모두 조기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각각 초기양상을 이해함으로써 조기의 내용과 조기의 시간적 범위를 파악해나가고자 한다.

3) 시기구분은 어떤 의미에서 전후한 시기의 급격한 변화를 명쾌하게 보여주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유물의 변화상은 점진적이며, 지역마다 편차가 있으므로, 시기구분으로는 문화의 연속적 변천과정을 이해하는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시기구분이 시간적 변천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구분개념 입에 틀림없고, 여기서 시기구분자체의 타당성은 문제삼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시기구분과 문화적 변천과정의 연구가 동일시될 수 없음을 명시해 둔다.

4) 즐문토기와 공반하는 공별의 형태는 무문토기시대의 것과 구분해야 할 것이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무문토기적 요소의 공반이라는 점에서 그대로 공별문, 돌유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도 1. 관련 유적 분포도

III. 초기와 전기의 분리 -초기양상 i-

돌대문토기가 초기의 후보로 올라 와 있는 이상, 돌대문토기문화의 단독기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전기와 분리될 만한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돌대문토기의 분포는 도1과 같고, 비교적 이른시기의 것은 한강유역과 남강유역에 집중분포한다(도 1).

1. 한강유역

미사리유적출토 돌대문토기와 공반유물을 보면(표 1), 기종구성과 석기조성은 전기무문토기와 동일하면서, 세부적 형태상의 차이가 있다. 전기무문토기와의 상이성을 열거해보면,

- 기종구성은 심발, 천발, 호로 적색마연토기는 출토되지 않는다.
- 심발의 경우, 타 계통토기와 공반하지 않는다⁹⁾.
- 태토는 즐문토기와 유사하다.

- 저부는 원저가 많고(일부 평저화한 원저), 평저는 매우 적다.

석기에서 보면,

- 석부, 석촉, 석도, 지석이 중심이 되어 조성되면서, 석검의 공반예가 없다.
- 타제석부의 형태가 많다.
- 석촉은 삼각만입촉뿐이다.

한편, 한강유역권의 가평 연하리유적, 춘천 우두동유적, 춘천 천전리121-16번지유적, 홍천 칠정리유적, 홍천 외삼포리유적, 정선 아우라지유적 등에서 돌대문토기가 출토된다. 홍천 외삼포리유적에서는 5기의 무문토기시대 주거지 가운데, 3호와 5호에서는 돌대문토기가, 1·2·4호에서는 공별토기가 출토된다(이희준2007). 양자간의 토기와 석기의 조성은 유사하고, 세부적으로 3호와 5호에서는 즐문토기편과 돌대문토기만이 확인되고, 삼각만입촉, 장방형석도가 공반하는데 반해, 공별토기와는 적색마연토기(2호), 일단경식석촉, 이단경식석촉이 추가된다. 칠정리유적에서도 돌대문토기주거지 8동, 공별토기주거지 6동이 확인되는데, 돌대문토기 주거지의 대부분은 화재 주거지로, 돌대문토기주거지에서는 돌대문토기만이 출토되고, 장경호, 삼각만입촉, 편인석부(방형), 반원형방추차, 어망추, 공구형석기 등이 공반된다. 반면, 공별토기주거지에서는 적색마연토기, 양인석부, 이단경식석촉등이 추가되고, 외삼포리와 동일한 양상이 확인된다(강원문화재연구소2007). 가평 연하리유적에서는 돌대문토기만이 출토되므로, 전기와의 관련성을 알 수 없지만, 그 내용을 보면, 돌대문토기와 편인석부(방형), 장방형석도, 삼각만입촉이 공반된다(이재철2007)⁵⁾.

이상의 발굴성으로 볼 때, 한강유역의 돌대문토기문화는 기본적으로 전기무문토기와 동일한 구성을 보이지만, 각 유물의 세부적 형태는 전기만큼 다양하지 않고, 하나의 조합을 이루며, 전기무문토기와 구별된다. 그리고 외삼포리유적과 칠정리유적에서 위석식노지가 형태를 약간 달리하며 공별토기주거지에도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돌대문토기와 공별토기가 공존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시간적으로 분리된다고 판단된다⁶⁾. 그리고, 미사리유적내에서 돌대문토기의 구성요소들 중에서 토기의 태토, 심발저부, 석부의 형태, 어망추의 형태에서 즐문토기문화적 특성이 반

5) 미사리유적 (서)8호와 (송)1호, 미사리(송)2호주거지에서 출토되는 돌대문토기는 매우 미미하므로, 전기의 주된 구성유물로 보기 어렵다.

6) 다-1호에서는 절상돌대문토기가 많이 확인되며, 일단경식석촉이 출토되고, 석부의 형태가 다양화 되는 점으로 보아, 다-13호보다는 시간폭이 클 가능성이 있다.

영되어 있고, 돌대문토기문화는 즐문토기와 무문토기와의 양쪽 요소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게 보면, 미사리유적내에서 즐문토기와 전기무문토기가 동시기일 것이라는 전제 없이, 돌대문토기와 여타 전기무문토기를 동시기의 계통성 차이로만 설명할 수 없고, 시간적 격차를 둘 수 밖에 없다⁸⁾(도 2).

2. 남강유역

돌대문토기출토 유적이 집중해 있는 곳이지만, 아직 공반관계의 전체상을 파악하기 어려워, 주거지구조의 변천을 기준삼아 편년한 적이 있다(천선행2005). 그에 따르면, 어은1지구118호와 옥방5지구D-2호를 조기로 설정하였는데, 돌대문토기가 단독으로 출토되는 점, 주거지의 구조가 석상위석식으로 미사리유적의 것과 동일하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다. 이들 주거지에서의 공반관계를 보면, 심발, 호, 천발로 구성되며, 어은1지구118호에서 즐문토기편이 다수 확인되고, 그 외에 구순각목편, 돌유문편을 각각 1점씩 확인하였지만, 파편의 형태 등을 고려할 때, 일괄유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문제는 어은1지구118호에서 출토되는 적색마연토기이다. 좀더 검토의 여지가 있겠지만, 기종, 기형, 마연방향과 범위 등에서 118호출토 적색마연토기는 전기이후에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적색마연토기와 다르다. 전자의 경우는 오히려 동북지방의 적색마연토기와 유사한 특징이 확인된다. 한강유역에서 돌대문토기 단독기의 경우, 적색마연토기의 공반예가 없기 때문에, 남강역의 이들 적색마연토기를 돌대문토기문화내에 귀속시킬수 있을지 의문이다.

발굴보고서의 간행을 기다려야 공반관계의 전모가 확실해지겠지만, 기왕의 분석에 있어서,

-
- 7) 정선아우라지유적에서는 1·3·4·5호주거지에 장방형의 위석식노지 설치되어 있다. 1호주거지에서 각목돌대문토기와 절상돌대문토기, 호, 장방형석도, 방추차, 방형편인석부, 어망추, 석촉 등이 공반된다고는 하지만, 노지는 활석을 이용한 것으로 호서지역의 가락동유형과 유사하고, 동일한 주거형태의 3호주거지에서 공별토기가 공반되므로, 시간적으로 전기의 이른시기일 가능성이 있다
- 8) 미사리유적의 돌대문토기문화는 즐문토기의 석부형태와 일부 공통되며, 전기에까지 지속된다. 그러나 그 외의 한강유역에는 즐문토기의 요소가 비교적 적게 확인되고, 장방형석도, 편인석부(방형)가 공반된다. 이러한 특징은 남강유역과도 공통되는데, 이것이 본래 돌대문토기문화의 구성내용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양 유적간의 차이는 돌대문토기문화의 한강유역내의 적용형태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거지의 변천과 공반관계의 경향성을 파악해 두고자한다. 즉 위석식노기의 형태와 토기의 공반양상에서 보면, 원형의 석상위석식노지 경우는 평면형태가 장방형인 것이 많고, 옥방5지구 D-2호에서는 돌대문토기만이 확인되고, 방형의 석상위석식노지를 갖춘 상촌리2호에서는 돌대문토기만, 10호에서는 돌대문토기와 공별토기가 공반한다. 그리고, 방형의 석상위석식과 토광위석식이 모두 확인되는 세장방형주거지의 어은1지구104호는 공별토기가 공반하며, 장방형석도와 함께, 주형석도가 추가되며, 석부의 형태가 다양해진다. 그리고 방형의 토광위석식노지를 갖춘 세장방형주거지인 옥방5지구D-1호와 세장방형 옥방5지구C-3호에서는 돌대문토기와 함께 전기무문토기가 다수 공반하며, 본촌리나3호주거지에서도 공별토기와 복합계토기들이 다수 공반한다. 이러한 공반상으로 볼 때, 위석식노지와 주거지의 평면형태변화에 맞추어 토기의 공반상이 변화하고, 원형의 석상위석식노지를 갖춘 장방형주거지에 돌대문토기만이 단독으로 확인되는 양상은 전기의 것과는 구분가능하고, 조기로 설정가능하다. 아울러, 즐문토기유적이 주변에 산재하고, 즐문토기와 공반상이 알려져 있으므로, 앞으로 즐문토기에서 무문토기로의 이행과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돌대문토기문화 단독기(도 2)

이상으로 볼 때, 돌대문토기문화 단독기의 내용은

- 주거지의 형태 : 방형 내지 장방형
- 노지형태 : 원형의 석상위석식, 토광위석식으로 강들을 이용한 것.
- 토기구성 : 심발, 호, 천발이 세트. 심발은 돌대문토기만이 확인되고, 적색마연토기가 공반되지 않는다.
- 석기조성 : 석도, 석부, 석촉, 지석이 중심으로 석검은 공반되지 않는다. 형태적으로는 장방형석도, 편인석부(방형), 삼각만입촉이 조합.
- 방추차 : 단면 반원형과 장방형.
- 어망추 : 신석기시대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것만이 확인된다.

로 파악가능하고, 전기무문토기의 조합과는 구별되며, 지역에 따라 일부 전기의 일정기간동안 지속되다가 전기무문토기문화에 흡수·동화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후술하겠지만, 돌대문토기의 분포가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돌대문토기 단독기로 설정한 조기가 한반도 남부지역에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신석기시대후·말기→무문토기시대조기→무문토기시대전기로의 일률적인 변화도 상정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도 2. 초기의 돌대문토기문화 단독기와 전기(토기 1/20, 석기 1/10)

IV. 돌대문토기와 가락동식토기와의 관계 -초기양상ⁱⁱⁱ⁻

위에서 돌대문토기 단독기는 전기무문토기인 공벌토기보다 빠르며, 조기로 설정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면, 가락동식토기와의 관련성에 관한 문제가 남는다. 가락동식토기는 호서지역이라는 한정된 지역에 집중분포하고, 신석기시대유적과의 접점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이른시기의 돌대문토기와의 공반예도 확인되지 않는다. 돌대문토기와 가락동식토기가 분포를 달리하며, 유사한 주거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조기로 설정된 돌대문토기와 가락동식토기의 공존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는 입장이다.

중서부지방에서 신석기시대후기(임상택의 III기이후)가 되면, 유적의 입지가 충적지에서 구릉상에 위치하는 것이 급증하고, 이는 무문토기시대의 유적입지와 유사하다(임상택2006). 뿐만 아니라, 시간적 연속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문산·노은동·신대동유적에서는 무문토기유적과 즐문토기의 포함층이 모두 확인되는 예가 있다. 그러나 양자의 공존관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근거가 없고, 호서지역의 무문토기는 하나의 완성된 유물조합으로 출현하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가락동식토기의 유물조합이나 특징상, 조기와 전기로 나눌 획기적 변화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가락동식토기 제작집단이 신석기시대유적과 일정기간 영향관계없이 공존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⁹⁾, 오히려 유입과 동시에 급격히 무문토기문화로 전환하였다고 생각된다(김장석2002).

가락동식토기문화의 유입과 확산사이의 시간적 격차가 없다는 점에서 남강유역의 변화상은 돌대문토기와 가락동식토기의 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보여준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남강유역의 돌대문토기와 전기무문토기의 관계는 주거지의 구조변천상에서 볼 때, 석상위석식노지가 있는 장방형 혹은 방형주거지에서 돌대문토기가 단독으로 출토되고, 토광위석식노지를 갖춘 장방형 혹은 세장방형주거지에서는 돌대문토기와 전기무문토기가 공반하거나 혹은 전기무문토기만이 확인되는 예가 많다. 전자는 돌대문토기문화의 특징으로 후자는 가락동식토기문화의 영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돌대문토기문화 단독기가 가락동식토기문화에 앞서 출현한다고 생각한다. 가락동식토기문화가 기본적으로 후속하는 전기문화의 일반적 양상을 대변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가락동식토기문화의 출현시점을 전기로 파악하는게 타당할 것이다. 이는 후술하겠지만, 절대연대상으로도 어느정도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상촌리유적, 금천리7호주거지에서 일부 즐문토기적 이중구연의 형태와 유사한 형태가 확인되어 무문토기의 이른시기로 편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금천리7호주거지는 가락동식의 토광위석식노지에 무문토기와 함께 신석기시대 말기의 이중구연토기가 공반하고, 상촌리유적 또한 무문토기구성을 보이고 있어, 기본적으로는 무문토기에 준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실질적으로 신석기시대문화와 전기무문토기문화와의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시기구분 그리고 토기문화의 변천과정이라는 틀속에서 파악할 때, 하나의 단계로 설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전기무문토기와 공통되는 유물조합의 출현을 전기로 한정하였을 때, 전기무문토기문화에 즐문토기적 요소가 공반되는 경우는 신석기시대에서 무문토기시대로의 이행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시기적으로는 전기이후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9) 물론 가락동식토기 제작집단과 즐문토기집단간의 완전한 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약간 중복되었지만, 그러한 기간은 하나의 획기를 둘 정도의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V. 조기의 상한-초기양상ii-

조기로 설정된 돌대문토기문화 단독기는 신석기시대의 어느 단계부터 공반하느냐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각목돌대문토기와 신석기시대와의 공반관계는 미사리유적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무문의 형태로 정확한 병행시기를 파악하기 불가능하다. 보조적으로 즐문토기유적내에서 일부 무각목돌대문토기가 공반되는 예가 있는데, 신석기시대에 나타나는 무각목돌대문과 무문토기시대의 돌대문토기와의 직접적인 계보관계에 있다고 보기 힘들지만, 무문토기시대의 돌대문토기의 연대를 검토함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이 됨은 확실하다.

신석기시대내의 무각목돌대문토기는 춘천 내평유적, 사천 구평리유적, 돌산 안도유적에서 확인된다. 이들 모두, 돌대가 분명하게 돌출되어 단면형태 대형에 가까운 것이 특징이다. 춘천 내평에서는 동일계사선문이 시문된 즐문토기의 구연부쪽에 무각목돌대문이 붙여져 있고, 이와 함께 미판통의 돌유문, 횡선문을 일정하게 반복시문한 즐문토기가 출토되었는데, 중서부지역 편년으로는 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임상택2006), 돌유문의 공반상에서 동북지방 호곡1기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 최말기로 설정되기도 한다(박순발1993). 그러나 아직 중서부지방의 편년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하였고, 후기의 세분편년이 어려운 점에서 명확한 위치설정이 어렵다. 한편, 남부지방의 사천 구평리유적에서는 신석기시대말기의 이중구연토기와 함께, 무각목돌대문토기가 공반하고, 돌산 안도「가」유적에서 무각목돌대문토기는 채집된 것으로, 공반관계가 확실치 않으나, 사천 구평리의 공반관계로 보건데, 역시 이중구연토기와 공반했을 여지가 크다. 이들 신석기시대의 무각목돌대문토기는 남부지방에서는 이중구연토기와 공반하는 말기에 나타나고, 중서부지방에서도 신석기시대후기에 공반하는 등 무문토기시대의 돌대문토기문화와의 시간적 거리가 그다지 크지가 않을 것이다.

중서부지방의 신석기시대후기의 세분이 어렵는데 반해, 남부지방에서는 최근 말기의 이중구연토기를 이중구연부의 형태에 따라 세분하는 경향이 확인되므로, 이러한 성과에 따라서 남부지방에서 이중구연토기와 공반하는 무각목돌대문토기의 시간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분경향의 기준이 되는 속성으로는 이중구연부의 폭과 단면형태, 구순부형태에 따라 2단계로 나누어진다고(임상택2001, 宮本2004).

이중구연토기의 형성에 관해서 개인적으로 봉계리식토기에서 발생하는 견해(이동주1991)를 지지하고 있는데, 봉계리유적에서 출토되는 이중구연토기가 가장 이른 것으로 보고 그 변천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준으로는 위의 속성과 함께, 문양구성을 포함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이중구연토기는 크게, 구연단이 둥글고 구연부가 외반하는 형태(A), 구연단이 면을 가지며 구연

붕계리식토기에서 발전하는 이중구연 형태가 가장 빠르다고 보면¹⁰⁾, A①형과 문양 사격자문이 결합하는 것이 가장 시원적인 형태가 된다. 붕계리유적에서는 역시 이중구연형태 A형이 많고 B형까지 일부 포함되며, 문양은 사격자문 혹은 장사선문으로 모두 이중구연부의 아래에 시문된다. 전자의 경우 주거지내에서 확인되고 후자는 주변출토유물에 한정되는데, 각각 보고서의 붕계리IV기와 V기에 해당한다. 무문의 경우도 이중구연형태는 A형 혹은 B형로 구성되며, 수적으로는 문양이 있는 것과 유사하다. 한편, 수가리 III기에 해당하는 I·II층 출토유물은 이중구연형태상으로는 붕계리V기와 일부 공통되면서, C형이 추가되고, 사격자문은 보이지 않고, 장사선문과 단사선문 그리고 일부 자돌형태의 문양이 있고, 모두 이중구연부 아래에 시문된다. 무문에 있어서도 C형이 많은데, 특히 C①형이 다수를 차지하는 특징이 보인다. 수가리유적에서 문양이 있는 것은 12점, 문양이 없는 것은 23점으로 무문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울리출토 이중구연토기는 문양이 있는 경우, C③형과 C④형이 압도적으로 많고, 단사선문 보다는 조문형태의 자돌문이 많으며, 새롭게 거치문과 점열문이 등장한다. 무엇보다도 이중구연부상에 문양이 시문되는 것이 특징이다. 게다가 무문의 경우는 47점으로 유문인 20점에 비해 보다 증가하며, 이중구연 A형은 보이지 않고, C④형과 C⑤형에 가장 집중한다.

한편, 오진리유적에서는 주거지와 II층에서 모두 이중구연토기가 출토되고, 보고서에 따르면, 주거지가 II층을 파괴하고 설치되어 시간적으로 후행한다고 한다. 그러나 유물 관찰에 의하면, 몇가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먼저 주거지 출토 유물을 보면, 붕계리식토기에 병행하는 납부 후기의 퇴화침선문토기들이 공반하고, 수가리II기층보다 약간 늦은 형태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이중구연토기는 A형과 B형이 많고, 문양 또한 사격자문이 결합하며, 이중구연부 아래에 시문된다. 이러한 특징으로 보면, 붕계리IV기와 붕계리V기에 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도 3). 이에 반해, II층 출토유물을 보면, B형과 C형을 많이 포함하고, 단사선문과 점열문, 거치문이 결합되고 있으며, 이중구연부상에 시문되는 예들이 일정량 출토된다. 이러한 양상은 울리출토 유물과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문양의 무문화 과정을 고려할 때, 후기에 보다 근접한 붕계리식에서 무문화가 진행된 울리 출토품으로의 변화가 자연스럽다. 게다가 문양의 시문위치에서도 후기에 구연부에 일정한 공백부를 유지하며 그 아래에 시문하던 행위가 일반적이라는

10) 신석기시대말기의 시점을 이중구연토기의 출현부터 보느냐 혹은 확산된 뒤의 시기로 보느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여기서는 이중구연토기의 단계설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출현시점을 신석기시대말기로 기술하고 있다.

점을 감안할 때에도 이중구연부상에 시문되는 쪽이 시기적으로 늦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유물 변화상을 염두에 두면, 유물로는 [주거지→II층]출토유물이 되고, 층위상으로는 [III층→주거지]로의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보고서 기술로는 주거지가 II층을 파괴하여 설치된다고 하는데, 층위에서 보는 한 뚜렷한 선후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돌대문토기가 출토되는 사천 구평리 유적은 정확한 집계를 못했지만, 출토 경향으로 보아서 수가리출토품과 울리유적 출토품이 모두 확인되고, 이중구연부에 문양이 시문되는 예가 없고, 단사선문이 많은 것으로 보아 울리보다는 이를 것으로 생각된다. 돌대문토기는 이중구연토기가 많이 확인되는 1층아래의 2층에서 확인되고, 고배형토기도 출토된다. 공반하는 즐문토기의 문양으로 볼 때, 역시 수가리단계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돌산 안도유적에서 돌대문토기와 이중구연토기의 일괄성이 분명치 않지만, 한반도 남부에서 돌대문토기의 출토 양상으로 볼 때, 이중구연토기와외의 공반가능성이 높고, 이들 이중구연토기 또한 수가리 출토품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다. 이렇게 보면, 한두예라는 아주 빈약한 예로서 시간적 근거를 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지만, 현상황으로서의 시안이라는 관점에서 신석기시대에 무각목돌대문토기와 공반되는 시기는, 남부지방의 경우, 이중구연토기와외의 공반관계, 그리고 이중구연토기의 세분을 통해서 수가리유적을 상한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돌대문토기 뿐만 아니라, 신석기시대에서 확인되는 이질적 요소로는 공별문 혹은 돌유문, 거치문이 시문된 이중구연토기등이 있다. 먼저 남부지방에서 울리유적과 오진리유적에서 확인되는 거치문이 시문된 이중구연토기가 종종 무문토기시대와 관련되는 것으로 이야기된다. 양유적출토 이중구연토기는 시문범위와 문양형태가 동일하지만, 결정적으로 이중구연의 단면형태가 다르다. 울리유적의 경우, 구연단이 면을 가지면서 전형적인 이중구연토기의 역삼각형을 이루는데 비해, 오진리유적 출토품은 구연부상단의 점토대가 그대로 이중구연부를 형성하며, 구연단 또한 둥글거나 뾰족한 형태이며 이는 무문토기시대 이중구연사선문토기와 동일한 형태이다. 신석기시대 이중구연토기의 단계에서 가장 늦은 울리유적의 출토품이 모두 역삼각형의 형태를 이루면서, 이중구연부가 동체부의 기벽에 붙는데 비해, 오진리출토품은 과연 이질적 요소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오진리유적 출토품은 동유적에서 출토된 즐문토기와는 태토상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들 토기가 이제까지의 전통과 반하는 이중구연상에 문양을 시문하는 점에서도 이들토기가 즐문토기의 변화과정에서나타나는 형태가 아니라, 새롭게 외부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¹¹⁾. 형태적유사성에서 문양은 재지적 전통하에 나타날 수 있다고 보더라도, 돌연 이중구연상에 시문하는 행위가 등장하는 것은 재지적 전통상에서는 파악하기 힘든 요소로 한반도 서북지방으로부터의 영향관계속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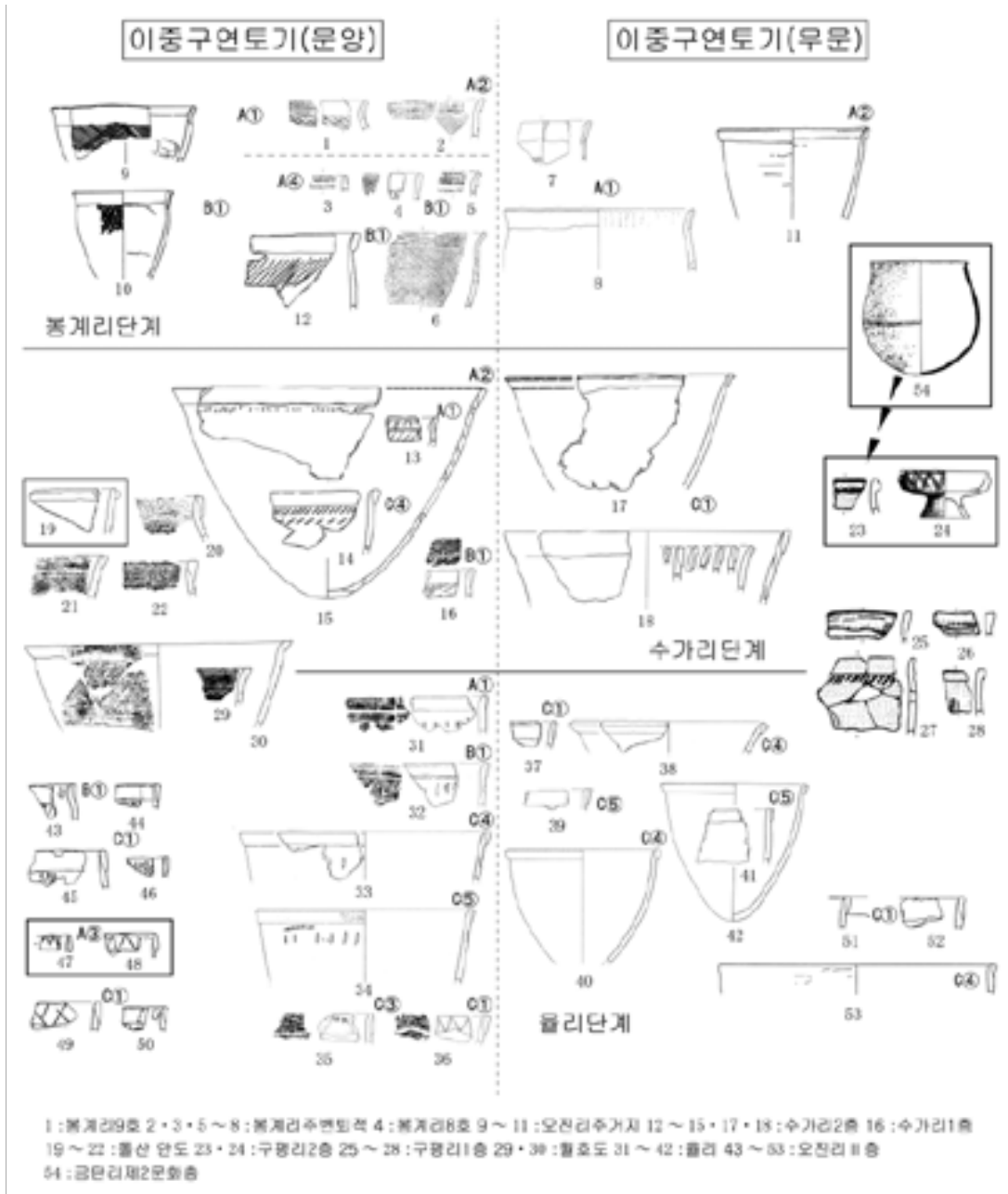
그러한 맥락에서 사천 구평리에서 고배형토기, 무각목돌대문토기가 출토된다고 생각된다.

이외에, 즐문토기와 함께 혹은 즐문토기에 공별이 시문된 토기들이 부안 계화도(미판통 공별문), 군산 노래섬 가지구(미판통 공별문), 춘천 내평(미판통 돌유문), 인천 용유도(미판통 공별문), 서산 대토리(미판통 돌유문), 여천 월호도(미판통 돌유문)유적 등에서 출토된다. 그 중에서, 여천 월호도에서 이중구연토기 B②형에 이중구연아래에 장사선문이 시문된 것과 미판통 돌유문이 공반된다. 이러한 형태의 이중구연토기는 수가리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석기시대말기에 무각목돌대문을 비롯하여 공별, 거치문, 이중구연등의 새로운 형태의 요소들이 남부지방의 각지에 유입되고 있는 것은 확실하고, 무문토기시대의 돌대문토기 단독기인 조기는 무각목돌대문토기를 실마리로하여 그 이상을 소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현상적 판단하에, 구평리와 안도 출토품이 이중구연토기의 3단계에서 수가리 단계를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밖의 공별토기와 이중구연토기의 요소들도 이중구연토기와의 공반상으로 보건데, 말기의 율리 단계에 많이 확인되고, 역시 소급하여도 수가리단계를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즐문토기 재래의 문화적 요소와는 이질적인 외부요소들이 확인된다고 하여 이 단계를 조기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각목돌대문이 무문토기시대의 돌대문토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가능성은 희박하고, 오히려 금탄리2기층의 무각목돌대문과 관련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즐문토기내에 공반되는 새로운 문양들 또한 무문토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신석기시대에서 무문토기시대로의 이행기라는 관점에서 보면, 북으로부터의 새로운 요소들이 이전보다는 자주 유입되는 시기임에는 틀림없고, 무문토기시대의 돌대문토기가 그러한 맥락 속에서 등장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기적으로는 조기와 병행할 가능성이 높다. 즉, 무문토기문화에 해당하는 조기의 돌대문토기문화 단독기와 시기적으로 병행하지만, 즐문토기문화를 기본 바탕으로 하는 단계를 무문토기시대 조기에 편입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11) 가락동식토기의 영향으로 파악하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 양자가 공존하는 외중에 나타나는 형태라면, 좀더 많은 문화적 유사성이 나타나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양만으로는 영향관계를 상정하기 어렵다.



도 3. 신석기시대말기의 이중구연토기의 단계와 새로운 요소의 공반관계(1/10)

VI. 실연대상의 검토

돌대분토기 단독기의 미사리유적의 연대측정은 없고 남강유역에서도 정식보고서와 함께 연대측정되어 있는 자료가 적기 때문에, 직접적 판단이 어렵다. 따라서 전후한 시기와의 관계속에서 파악할 수 밖에 없을 듯하다(표 3).

먼저, 돌대분토기출토 유적의 연대측정치는 조기로 판단되는 옥방5지구D-2호가 3230 ± 30 B.P., 3180 ± 60 B.P.이고, 전기로 설정가능한 상촌리2호는 3030 ± 50 B.P., 상촌리10호는 3010 ± 50 B.P.로, 대체로 돌대분토기 단독기보다는 약간 늦게 나타난다. 어은1지구의 측정결과는 2850 ± 60 B.P., 2830 ± 60 B.P.로 단독기와 차이가 나지만, 전기 이후의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봉계리식토기가 출토되는 송죽리3호가 4330 B.P., 상촌리(동의대)의 봉계리식토기가 출토되는 연대는 4290 ± 30 B.P.이다. 그리고 이중구연토기가 출현하는 봉계리 9호 주거지가 4060 ± 150 B.P., 수가리1층은 3040 ± 80 B.P., 3290 ± 70 B.P., 올리패총의 패각이 3580 ± 75 B.P., 오진리1호주거지 노지바닥은 3480 ± 100 B.P., 2호노지 2970 ± 60 B.P.이다. 오진리 주거지의 경우, 봉계리식토기에 비교적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는 것은 출토유물의 상대편년과 부합한다. 올리패총의 것은 비교적 연대가 빠르는데, 측정시료가 패각임을 고려할 때, 연대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남부지방의 봉계리식토기에 후행하는 이중구연토기의 수가리 단계이후가 3500~3000 B.P.사이 해당하고, 돌대분토기의 출토유적이 3200~3000 B.P.에 해당하며, 대체로 이들의 연대가 중복됨을 지적할 수 있다.

전기의 이른시기로 판단되는 연대측정을 보면, 삼거리 9호주거지가 $2,930 \pm 50$ B.P., 혼암리 12호는 3210 ± 70 B.P., 2980 ± 70 B.P., 2920 ± 70 B.P., 2620 ± 100 B.P.이며, 용산동1호 2820 ± 60 B.P., 2860 ± 70 B.P.로, 용정동1-1호가 2930 ± 50 B.P., 용정동2-1호 2900 ± 50 B.P., 현화리 유적이 3110 ± 130 B.P., 2910 ± 130 B.P., 2830 ± 140 B.P.이다. 전기는 대체로 2900 B.P.를 전후한 연대에 집중하고 있다.

이상으로, 돌대분토기문화 단독기 즐분토기와 일정정도 공존하는 것이 실연대상 확인되고, 전기무분토기 또한 돌대분토기문화 단독기의 연대와 확연히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어, 돌대분토기문화 단독기를 연대적으로도 전기와 분리하여 조기로 설정가능하다. 그리고, 신석기시대말기의 이중구연토기의 수가리단계 이후의 연대가 돌대분토기 단독기와 일부 중복되고 있어, 신석기시대에 확인되는 새로운 요소의 시간적 위치도 대체로 돌대분토기 단독기와병행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무분토기시대 조기의 연대는 돌대분토기 단독기와 조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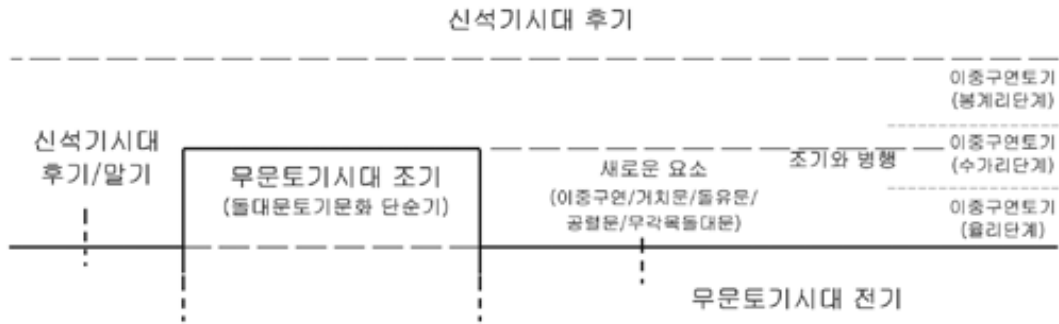
표 3. 실연대상의 비교

송죽리3호 상촌리(동의대)	4330B.P. 4290±30B.P.	봉계리식토기				
이중구연토기의 출현	봉계리 9호	4060±150B.P.				
	오진리주거지	3480±100B.P.				
	갈머리 53호적석	4050±40B.P.				
	III기 9호적석	3840±40B.P.				
	1호적석	3760±80B.P.				
	4호적석	3650±40B.P.				
이중구연토기 (수가리단계· 올리단계)	수가리1층 올리패총	3040±80B.P. 3290±70B.P. 3580±75B.P.	3230±30B.P. 3180±60B.P. 3030±50B.P. 3010±50B.P.	옥방5지구 D-2호 상촌리2호 상촌리10호	돌대분토기 단독기	
			무문토기시대 전기	2850±60B.P. 2830±60B.P. 2,930±50B.P. 2820±60 B.P. 2860±70 B.P. 3210±70 B.P. 2980±70 B.P. 2920±70 B.P. 2620±100 B.P. 2930±50 B.P. 2900±50 B.P. 3110±130 B.P. 2910±130 B.P. 2830±140 B.P.	어은1지구 삼거리 9호 용산동1호 혼암리12호 용정동 I-1호 용정동 II-1호 현화리 유적	

병행한다고 생각하는 이중구연토기의 수가리단계의 연대를 고려하면, 상한은 3200 B.P.를 전후한 시기로, 하한은 전기무문토기가 출현하는 2900 B.P.를 전후한 시기로 연대폭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VII. 맺음말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신석기시대에서 무문토기시대로의 이행기에 있어서 조기의 양상을 파악함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무문토기적 요소가 확인되는 초기양상 가운데, 돌대분토기의 단독기는 전기무문토기와 유물의 형태적 조합에서 구분되고, 시간적으로도



도 4. 조기의 설정과 병행관계 모식도

전행하는 단계로 설정하였다. 그 밖의 신석기시대에서 무문토기시대로의 전환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점에서 무문토기요소의 유입과 동시에 남부전역으로 확대되며, 전기무문토기내에 전개과정상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 점에서 완전한 유물조합을 이루어 출현하는 시기부터를 전기로 파악하였다. 또한 신석기시대 말기에 즐문토기와 함께 종종 확인되는 새로운 요소들은 신석기시대에서 무문토기시대로 이행하는 도정에서 나타나는 타 지역과의 영향관계속에서 나타나는 산발적 양상으로, 시기적으로는 조기의 단계에 병행하지만, 문화내용으로서는 무문토기시대 초기로 볼 수 없음을 파악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초기설정이 한반도 남부전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무문토기시대로의 이행양상이 다양함을 말해준다. 즉, 신석기시대에서 무문토기시대로의 전환은 지역별(혹은 유적별)로 매우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도 4). 즉 돌대문토기 단독기와 같은 조기문화가 존재하는 지역(혹은 유적)유적이 있는가 하면, 신석기시대와 무문토기시대가 뚜렷한 접점없이 급격히 전환되는 지역(혹은 유적)이 있고, 신석기시대유적내에 일부 외부요소가 확인되는 와중에 무문토기시대로 이행하는 지역(혹은 유적)이 있다. 개별적이고 산발적이라는 특징이 신석기시대에서 무문토기시대로의 이행기에 나타나는 한반도의 특성을 대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를 전개함에 있어, 조기의 상한 설정은 남부지방의 것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신석기시대의 남부지방과 중서부지방의 편년적 병행관계가 정착되지 않은 한, 제시한 조기의 상한을 중서부지방에까지 적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신석기시대 말기의 이중구연토기를 대상으로 단계를 설정하긴 했으나, 이중구연의 형태와 문양구성등에서 지역적 변이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에 대한 검토와 비교가 불충분하였는데, 앞으로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 본고를 작성할 때, 도움을 주신 박영구 선생님, 이기성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 강원문화재연구소, 2005, 「정선 아우라지유적」, 정선 아우라지 관광단지 조성부지 시굴조사 지도위원회회의자료.
-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홍천 구성포-두촌간 도로 확포장공사내 유적 발굴조사 洪川 哲亭遺蹟 II-3차 지도위원회의 자료 -」.
- 國立金海博物館, 2005, 『轉換期の先史土器』.
- 國立金海博物館, 2006, 『轉換期の先史土器資料集』.
- 金卍錫, 2001, 「欣岩里貝冢型 재고: 기원과 연대」, 『嶺南考古學』28.
- 金卍錫, 2002, 「남한지역 신석기-청동기시대 전환: 자료의 재검토를 통한 가설의 제시」, 『韓國考古學報』48.
- 金材胤, 2003, 『韓半島 刻目突帶文土器の編年と系譜』, 釜山大學校大學院碩士學位論文.
- 東亞大學校博物館, 1999, 『南江流域文化遺跡發掘圖錄』.
- 朴淳發, 1993, 「한강유역의 청동기·초기 철기문화」, 『한강유역사』.
- 裴眞景, 2003, 「無文土器の成立と系統」, 『嶺南考古學』32.
- 서울大學校博物館, 1994, 『美少里』第4卷.
- 이재설, 2007, 「가평 연하리유적」, 『강원고고학회 2007년 춘계학술대회 발표요지』.
- 안승모·이영덕·김대성, 2003, 『갈머리 유적』, 호남문화재연구원 학술조사보고제13冊.
- 安在喆, 2000, 「韓國農耕社會の成立」, 『韓國考古學報』43, 韓國考古學會.
- 安在喆·千羨幸, 2004, 「前期無文土器の文様編年と地域相」, 『福岡大學考古學論集』.
- 安春培, 1999, 「山淸召南里聚落遺蹟」, 『環濠聚落と農耕社會の形成』, 第3回嶺南九州考古學會合同大會.
- 윤세영·이홍중, 1994, 『美少里』第5卷.
- 이동주, 1991, 「한국 남부내륙지역의 신석기시대 유분토기연구」, 『상고사학보』7.
- 李相吉, 1999, 「晋州大坪里漁隱地區先史遺跡」, 『남강선사문화세미나요지』.
- 이홍중, 1987, 「日本 初期水田農耕期の 덧띠새김무늬 토기-韓半島와의 관련을 중심으로-」, 『史叢』제33집, 고대사학회.
- 李亨源, 2002, 『韓國青銅器時代前期中部地域無文土器編年研究』, 忠南大學校大學院碩士學位論文.
- 이희준, 2007, 「홍천 외삼포리유적 발굴조사개보」, 『강원고고학회 2007년 춘계학술대회 발표요지』.
- 林尚澤, 2001, 「3駕島A貝塚の編年の位置(1)新石器時代」, 『駕島貝塚』.

- 林尙澤, 2006, 『한국 중서부지역 빗살무늬토기문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문학박사학위 논문.
- 정원철, 2007, 「춘천 천전리121-16번지 유적조사개보」, 『강원고고학회 2007년 춘계학술대회 발표요지』.
- (재)신라문화유산조사단, 2007, 「경주시 충효동 도시개발사업지구내 문화재발굴조사」지도위원회 회자료집.
- (재)호남문화재연구원, 2005, 『淳昌院村·官塚遺蹟』, 호남문화재연구원 학술조사보고제53冊.
- 千羨幸, 2005, 「한반도 돌대문토기의 형성과 전개」, 『韓國考古學報』57.
- 최종택, 1994, 「羨沙里遺跡의 住居樣相과 變遷」, 『마을의 고고학』, 제18회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